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월 1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도정 보고의 건
5. 2021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 | |
|---|-----|
| 1.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면 |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2면 |
|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면 |
| 4. 2021년도 도정 보고의 건 | 3면 |
| 5. 2021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 6면 |
|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
| o 이상식 의원 | 10면 |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7면 |
|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이상정 의원) | 18면 |

(14시14분 개의)

○의장 박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설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21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상교 의원님과 서동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U대회추진과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이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도정 보고의 건

(14시22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도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도정보고에 앞서 최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맹경재 실장은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동 행정국장입니다.

오세동 행정국장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음성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상규 국장은 신성장동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입니다.

김진형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경화 농정국장입니다.

정경화 국장은 진천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해운 국장은 신성장산업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이상은 원장은 증평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기획관은 예산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양기 감사관입니다.

임양기 감사관은 도 감사관을 역임하였고, 이번에 재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과수화상병, 대규모 수해 등이 겹쳐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송 제3생명과학·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정부예타 통과, 2년 연속 투자유치 10조 원 달성, 6조 8,000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고용률 전국 3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연시에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AOC) 발급, 중앙선 제천~원주 간 복선전철 개통 등 주요 현안들이 대거 해결되면서 충북 미래 100년을 향한 청신호가 밝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그리고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의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해 우리는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포스트 코로나와 미국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에 맞춤형 충북경제를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충북 100년 미래 청사진인 강호축과 충청 광역생활경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만 5,000여 도·시군 공무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164만 도민 모두가 큰 꿈과 희망을 펼치는 극난대망(克難大望)의 한 해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데 도정의 역량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 집단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전국 최초로 감염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게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24명의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으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베스티안병원과 음성 소망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확진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올해 신설된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둘러 집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충북먹개비업 등에 679억 원을 지원하여 흔들리는 서민경제의 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산업현장의 생산직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직업 전환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회관 건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보강,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국립소방병원과 단양 보건의료원 착공 등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단을 적극 운영하여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 개발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으로 충청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 당초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삼탄~연박 구간을 추가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의 근거법인 가칭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호축 발전포럼을 활성화하면서 강호축 마라톤대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특히 청주공항~청주시내~세종·대전 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호천 개발사업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선점해 온 6대 신성장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제약, 태양광, 화학·배터리, 반도체·전기·전자산업 등에 대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확대 지원정책은 충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충북은 바이오노믹스에 최적의 맞춤형 충북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국비 115억 원을 들여 설계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및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과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 4개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은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보은 법주사 정보박물관은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청남대에 나라사랑리더십연수원을 건립하여 청남대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성지로, 국민통합과 포용의 산실로, 나라사랑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26개소를 확충하고 충북전시관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연말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은 에어로케이가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도정의 핵심가치로 꾸준히 추진해 온 함께하는 충북의 기초 아래 도내 균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의 상징인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설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는 '23년 완공을 목표로 서두르고 중부고속도로는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전 구간에 걸쳐 추진하며, 서청주~증평 구간 6차선 확장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도 서두르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금년에, 충주~문경 구간은 '23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농시사업은 지난해 4개 시군에 이어 금년에 4개 시군을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함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대응해 나가면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우암산 명품 들레길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충북 안전체험관 건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조기안착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미래인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충북

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투자유치 이전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청년희망센터 지원과 함께 여성영화제,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 가족센터 건립 등으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1,410명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확대, 충북학사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 충북은 코로나19 대유행만 잘 극복한다면 의외로 보람의 한 해, 기회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K-방역의 진원지가 우리 충북이라는 자긍심 위에 바이오노믹스에 부합하는 맞춤형 충북 경제를 실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로 조기진단, 곧 개발 예정인 치료제 투여로 조기치료,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으로 조기에방이라는 3박자가 더해진다면 저는 코로나19는 금년 중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및 도·시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극난대망(克難大望)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39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신축년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시는 새해 꿈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격랑 속에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충북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문명의 도전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극한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집단지성과 공동협력으로 삶을 가꾸는 교육, 꿈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역동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고 수준의 물리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심리방역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주요 업무를 탄력적으로 재구조화하였고, 전국 최초로 충북형 원격수업플랫폼 ‘바로학교’를 개발하여 학습공백과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전 학교 무선망 구축에 187억 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상회의시스템 및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교실 구축, 온라인 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실 확충, 충북 학교미디어교육센터·SW 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넘어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미래형 대안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치유형 은어울고등학교, 성장형 단재고등학교, 성찰형 충북형 전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그 결과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교육 활성화 유공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안전망 구축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미래형 교육자치 우수협력지구로 충주와 옥천지구가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충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는 변화의 격랑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3국 2담당관 12과 49팀 체제에서 3국 2담당관 13과 54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본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여 미래 유아교육체계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형 대안교육을

지원할 대안교육팀,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건전한 학교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인식개선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학교 정보화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을 전담하는 학교지원국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 학교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새해에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치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적인 협의문화 속에서 학교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모든 학부모님들이 협력적 교육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지역 행복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온마을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지역·계층·세대가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교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학습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북형 블렌디드 수업모형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충북형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연수시스템, 교수학습 지원 에듀테크센터, 충북 교수학습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용 바로학교를 확대 개편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미래인재육성 8대 모델을 내실화하여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예술·체육계열 공동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 학생 선택권을 넓힌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체제를 확대하여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학습공간의 유연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사용자 참여 설계 학교공간 조성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미래교육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 에듀테크 활용교육 강화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등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발굴·활용하여 따뜻한 감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도내 교육도서관을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재

구조화하여 학생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소통과 교육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교육자원이 온마을 학습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교스포츠클럽 전문인력 지원을 통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생태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3.0, 찾아가는 기후 환경학교, 릴레이 기후위기 연수 등을 추진하여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품성교육을 넘어 지구생태계 관점의 학교 환경교육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교육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무선 인프라 및 원격수업 기자재를 확충하는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고 학교 안팎에서 집중지원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바로학교3.0과 연계한 에듀테크 학습놀이터,

참여형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모든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유치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행복지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전환교육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우리 교육청은 5대 중점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수평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갖추고 교육주체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생·현장 중심의 민주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개정 및 실천을 통해 충청북도교육공동체현장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화하여 체험과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민주주의 지표 적용,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학습 실천교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개발, 학교 밖 배움터를 활용한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 마을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은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입니다.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수업 내-학교 내-학교 밖’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펼쳐 학생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바로학교3.0 플랫폼 지원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도내 전 교실 대상 1교실 1AP 설치, 원격수업 우수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복지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운영,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학습안전망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은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고교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학교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고교 교육과정 8대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지역 연계 인적·물적자원 발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교육 혁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원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및 교과지도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13개 권역 학교 간 자율협의체 운영,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교육협력센터 운영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과 상생의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바로알기 체험학교, 기후·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학교환경교육 프로그

램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여 지구생태계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생태민주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3.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록학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과 연계한 제로에너지 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여 학생 생태체험활동부터 환경교육 연구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태환경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친환경 건축과 학교숲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사업은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중심에 두는 그린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지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환경개선을 넘어 학교 공간 주권을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빗물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그린스마트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여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 시설을 교육공간이면서 지역 복합 생활SOC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시우지화(時雨之化)의 정신으로 토양 위에 초목이 마음껏 자라고 꽃피울 수 있도록 때맞추어 내리는 단비와 같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

다.

2021년 충북교육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백년지계 교육혁신을 위해 변화의 바람을 타고 만리를 헤쳐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충북 미래교육의 원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미래를 헤쳐 가는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K-방역과 K-에듀 역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교육은 5대 시책과 중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소망하며, 도민과 충북교육 가족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이상식 의원

(15시01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2동 지역구 산업경제위

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터널을 지나 그동안의 사회적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의료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을 위해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배포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1월 전망치가 2020년 1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91.7포인트로 발표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거리 두기 심화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로 전월 대비 16.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 3월에서 4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 SBHI는 65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58.2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22.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소상공인 주력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월 대비 53.8에서 28.1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6.4포인트나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전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에 따른 충북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전년 동기 대비 2월과 3월 17% 감소하였으며 이후 3월 13% 감소, 그리고 5월부터는 완만한 안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충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된 8월 들어 다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 3차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12월 들어서는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상황을 더 보기 위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취업자 현황을 전국과 충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 5,000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5,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북 내 종사상 지위별 통계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통계치보다 현장의 상황이 더욱 냉혹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비임금근로자는 24만 8,000명으로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0년 11월에는 1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19만 4,000명으로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4,000

명으로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영업제한 및 금지에 따른 도의 자영업자 지원정책, 무엇이 있었는지 재정이나 고용, 판로지원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짚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이시종 지난해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작년도에 한 4,090억, 1만 5,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에 586억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업을 전환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충북은 2020년 12월 들어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을 선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행정명령이었다는 데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자영업자들은 생업과 생존을 일정부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한 소상공인의 행정명령 이행에 행정기관 또한

최소한의 사회적·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도지사 이시종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 긴급재난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의원 지난주부터 중앙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업체 수 10만 2,000개, 2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계시며 이는 전국 대비 3.2%에 해당합니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법인 이외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산해 본 결과 2020년 12월 16일 현재 약 4,60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 10월 중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9년 대비 '20년도 매출감소 응답이 전체 70.8%로 나타났고 이 경우 매출감소 비율은 평균 37.4%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2020년도는 2019년도의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출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주 많이 악화될 것이다 32.2%, 약간 악화될 것이다 31.4%로 부정적인 강도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증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10곳 중 7개 업체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이 증가했다는 비율은

0.7%에 그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현 재정상태와 코로나19의 경제안정화 기회비용 등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즉, 지역민의 폐업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소상공인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충북형 선별재난지원금 지급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업종이 업체당 100만 원, 제한업종이 200만 원, 금지업종이 300만 원 이렇게 현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봐 가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시종 예.

○이상식 의원 사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전반적인 계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의 폐업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충북과 부산, 울산, 이 세 군데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사님, 이렇듯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충북은 많은 차이를 솔직히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만의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충북만의 다른 지원정책이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아마 어느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하여튼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2조 2,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 것이 5,780억, 그다음에 도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 지원한 것이 2,155억 쯤 됩니다.

우리는 주로 선별지원 이런 개념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근본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회복 쪽에 8,4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선별재난지원 플러스 경제회복 여기에 다른 도보다 아주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이, 그래도 지난해 연말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수출액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12.8%가 상승이 됐습니다.

전국이 5.4%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12.8%, 대전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 대전은 수출 규모가 우리의 한 6분의 1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얘기할 게 안 되는 거고.

이것이 그래도 우리 충북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에 많이 지원해 준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도의 노력에 제가 다른 이

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직접지원이죠. 직접 지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 국한이 됐습니다. 그게 3만 8,000명이라고 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북도의 자영업자는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지원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에 대해 임대료가 68.8%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54%, 각종 세금 50%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의 방향은 임대료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도 지사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 가구 중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가 2020년 2월 2.3%였지만 2020년 12월은 7.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3월 정부와 금융권의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이 비율은 올해 말 10.4%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환유예 만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폐업을 결정하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폐업을 유보하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영업의 어려움보다 폐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실행하거나 계획된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이시종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고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정책자금을 많이 용자를 해 드려서 우선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은 거에 대한 상환기간을 1년 정도씩 연장해 주는 것 그런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모두가 옛날처럼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일부 희망하는 분들을 생산적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직업 전환시키는, 그래서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키는 기능공 계통의 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식 의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취업 지원,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일반 중소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고 그러면 줄였던 인력을 먼저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자영업자의 취업 지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고해 주셔도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충북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충북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3차에 걸친 팬데믹 상황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 1차 대

유행시기인 4월 72.4포인트에서 1차 정부재난 지원금 지원 후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2차 팬데믹 시기 다시 하락하고 이후 또다시 회복세를 보입니다만 12월 3차 팬데믹을 맞아 전월 대비 5.6포인트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건전한 소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는 지난해 1차와 같은 보편적 재난 지원금입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시화된다고 해도 지난해와 같이 정부의 몫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중복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체감적인 소비진작과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경제에 즉각 반응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중복경제 전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복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지사님, 질문이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안정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중복만의 보편적 지원금을 통해 소비진작에 나설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아직은 그 문제까지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이것이 언제쯤 종식이 된다, 그래서 그때 가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은 코로나19 종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들, 피해계층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와 울산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현재 한 20여 개가 확정을 했구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는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에 있

다고 봅니다. 소비진작은 곧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갈 때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직접 소비자에게 현찰을 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금이 경제메커니즘을 통해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고용이 창출되고, 거기서 다시 소비자에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체계가 일반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또 하나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금과 같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옳느냐 했을 때 본인들이 지급받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그것이 소비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경제활성화 그리고 자영업자의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1년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은 저희 경제와 또 하나 직결돼 있다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충북도의

정책을 솔직히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고 그 고용에 대한 데이터, 고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호·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농업인구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충북의 농업인구는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농업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농업인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노동인력 그리고 이 농업인력... 농업인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력이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 혹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사건 언론을 통해서라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지사 이시종 예.

○이상식 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충북 내 농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현장에도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지사 이시종 현장은 가봤습니다. 숙소 같은 것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구요.

주거환경 이런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생산현장은 제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사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1월 포천 사건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 69.6%, 사업주 64.5%가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와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숙소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신고율이 56.5%나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숙소 시설과 관련 냉난방, 화장실, 남녀침실 구분 등 99%가 구비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실상은 비닐하우스나 녹슨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상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밖에 외부의 재래식 이동용 화장실과 농장 내 어느 한 구석에 대충 설치된 샤워꼭지가 그럴듯한 화장실과 샤워시설로 둔갑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북도 내 기업과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 근무여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해안이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이시종 우리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측에서 자료제공이 제대로 안 돼서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고용노동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고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분명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 와 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주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격차 그리고 급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맞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충북도 내 기초 지자체별 온도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재난지원금 비해당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소득보전과 소비주도의 목적도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별 차이로 인한 박탈감이 없도록 광역 지자체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충북의 정책방향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오며 미래의 희망도 함께 나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디지털교육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교육현장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 발맞

추어 우리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이 갖는 평등함과 공공성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구호성 외침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충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충북교육청도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왜곡되어진 사회적 기능들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신 이시종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피라미드 밑바닥을 겨냥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개별 구매력보다는 전체 구매력이 가장 많은 서민층 시장공략을 주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사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소수의 힘없는 약자를 향한 정책이 다양할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적 힘으로 사회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충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희 이상식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9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이상정 의원)

(15시30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 청주시 허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규모 4%의 경제규모를 목표로 이시종 지사님이 이끄는 우리 충북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충북의 경제규모는 2010년 전국 대비 3.04%이던 지표가 2018년 기준으로는 3.63%까지 성장합니다.

이 비율은 0.59% 성장한 것으로 2010년 대비 약 20%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10년 전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성장한 광역단체는 경기, 세종, 우리 충북, 그리고 제주입니다.

성장근거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혜를 받고 있고 세종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제주는 특별자치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충북은 이렇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도 GRDP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대전과 충남을 봐서도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사님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2019년도 GR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요, 확정분이 아닌 잠정치이긴 하지만 3.62%로 처음으로 성장을 멈춘 해가 시작되

었습니다.

저는 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북의 균형발전과 산업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을 향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를 분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GRDP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것처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공간에 일자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충북 청주와 수도권의 현 상황은 우선 면적 면에서 수도권은 전국 대비 면적 11.8%, 충북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은 12.7%입니다.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수도권은 50%, 청주는 52.5%입니다.

그럼 경제규모는 어떨까요?

확정치가 발표된 2018년도 기준으로 수도권은 51.9%, 충북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입니다.

두 곳의 비율은 매우 유사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제 수도권이 아닌 우리 도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우리 도가 이러한 수치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경제규모를 목표로 앞만 보고 온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편중된 결과로는 경제규모 4%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충북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에 이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분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면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의 장점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아닌 본원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도청 이전에 대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제2의 수부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기업도시로 지칭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2의 수부도시를 지정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융복합적인 거점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일자리, 문화, 사람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청주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85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자율권이 부여된 특례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중부권의 힘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청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청주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하드웨어보다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힘을 실어주고 균형발전을 이룰 때 우리가 목표한 경제규모 4%의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문희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였고 현재 주요 10개국도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에 멈추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함은 물론, 저탄소 전략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신경제질서 형성과 신시장 창출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개척하며 글로벌 무역질서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2024년 이후 미국·중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탄소중립의 시

급함과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대통령 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를 줄여야 하는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사업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앞으로 30년 동안 중단하여야 하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공장, 아파트 등 가능한 건물 옥상에는 더 많은 태양광발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휘발유·경유 차량은 멀지 않아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로 대체해야 하며 공장에서의 화석연료는 전기·수소로 대체하거나 탄소자원화 기술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분야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농축산 폐기물과 쓰레기는 국민적인 자원화 노력으로 제로화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충북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흐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도 기존의 사업을 역지로 맞추는 데에 급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은 이러한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과 함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폐기물·농업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충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광범위한 민간 거버넌스로 구성해야 하며 시군을 포함해 경제계, 환경 시민단체, 농업계, 학계 등 범도민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의 의지를 담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의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새로 신축하는 의회 청사를 에너지 자립건물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충북도와 함께 2050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실무 민관협력기구인 충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문희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식 허창원 송미애
 연중석 박우양 서동학
 (2021년 1월 13일, 공고 제2021-8호)

○회의록 서명의원

정상교 의원, 서동학 의원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중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	지	사	이	시	종
기	획	관	리	실	장
재	난	안	전	실	장
행	정	국	장	오	세
경	제	통	상	국	장
신	성	장	산	업	국
방	사	광	가	속	기
농	정	국	장	김	진
균	형	건	설	국	장
환	경	산	림	국	장
정	책	기	획	관	신
자	치	연	수	원	장
여	성	가	족	정	책
교	육	청			이
교	육	감			남
교	육	국	장	김	병
행	정	국	장	박	우
				박	창
				박	호
				승	렬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이상욱 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 이상욱 임영은 심기보
- 육미선 이옥규 오영탁